

[사회]

“비워라” 상무관 갈등 “못비워”

문화도시기획단 “못나가겠으면 월 656만원 내라”

광주시 유도회 “무료 임대 안되면 체전 보이콧”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을 둘러싸고 광주시 유도회와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기획단은 최근 유도회에 공문을 보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상무관을 폐쇄하니 3월 중순까지 나가 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기획단이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된 상무관의 소유 주체가 지난 1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기획단은 올 연말까지 상무관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도회 측은 전국체전을 앞

두고 유도대표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광주시 체육회도 유도회의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기획단 측에 발송했다.

기획단은 그러나 '리모델링 시점까지 건물의 사용을 원할 경우 국가재산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해 월 656만3천861원의 사용료를 부담하라'고 그러나 기획단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기획단이 원칙만을 내세우며 상무관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 시위나 전국체전 출전 거부 등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도회 우태규 전무이사는 “상무

관은 50년 이상 광주 유도인들이 땀을 흘려온 상징적인 곳으로 대표선수들의 훈련장인데,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전국체전이 끝나는 10월까지라도 현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자 광주시는 지난주 '전문체육 육성 차원에서 오는 10월 전국체전 전까지 광주시에서 무료 임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획단에 보낸 상태다.

한편 상무관은 일제시대 경찰들의 무도 훈련장인 '무덕전'의 후신으로 1968년 문을 열었으며, 현재 유도·검도 등 선수나 경찰 외에 일반인들도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주검을 안치했던 역사상으로 인해 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돼 보존이 결정됐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 학생도 서울 국제고 갈 수 있다

광주, 2010년부터 대일·이화외고 지원 가능

내년에 개교할 예정인 서울 국제고에 광주·전남 중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입학하는 오는 2010년부터는 광주학생들은 대일외고와 이화외고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 국제고와 대일외고 및 이화외고 등 특수목적고의 입학지역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서울국제고 입학자격은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생 또는 국제고에 없는 광역시 및 도 소재 중학교 졸업생'으로 바꿨다. 이 규정에 따라 부산 국제고와 경기도 가평 청심국제고도 있

는 만큼 부산과 경기 지역 학생을 제외한 다른 시·도 학생은 서울 국제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내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여는 서울 국제고는 국제업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수업을 대부분 외국어로 진행하며 정원은 6학급 150명이다.

대일외고와 이화외고도 2010년부터 지원 자격을 서울지역 학생에게만 주려던 계획을 바꿔 외고가 없는 외지 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고가 없는 광주·강원·울산·충남 4개 지역 학생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약한 황사바람 3월 27일 (음 2월 9일) 

흐린후 오후에 개겠다.

광주	흐린후 맑	8~16℃
전남	흐린후 맑	9~14℃
전북	흐린후 맑	10~15℃
충남	흐린후 맑	8~15℃
충북	흐린후 맑	7~17℃
경남	흐린후 맑	7~15℃
경북	흐린후 맑	7~15℃
충청	흐린후 맑	8~16℃
강원	흐린후 맑	6~16℃
제주	흐린후 맑	8~15℃
서울	흐린후 맑	8~15℃
인천	흐린후 맑	8~15℃
대전	흐린후 맑	6~16℃
전주	흐린후 맑	8~15℃
대구	흐린후 맑	8~15℃
부산	흐린후 맑	6~16℃
목포	흐린후 맑	8~15℃
여수	흐린후 맑	8~15℃
제주	흐린후 맑	8~15℃

서울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북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9:08 썰물 < 00:49
목포 밀물 < 20:47 썰물 < 15:30
여수 밀물 < 04:46 썰물 < 11:32
여수 밀물 < 17:00 썰물 < 23:11

▲해돋이 06:27 ▲해질 18:49 ▲달돋이 12:39 ▲달질 02:5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수)	29(목)	30(금)	31(토)	4/1(일)	2(월)
날씨						
최저/최고	5/17	7/19	8/20	10/16	8/18	8/17



‘향긋’ 봄 미나리 “오매~ 오진거!” 나주시 노안면 봉호리 들녘에서 아낙들이 봄 미나리 수확에 한창이다. 해열·혈압강하·해독 등 약용효과가 있는 미나리는 1kg당 1천원(도매가)에 팔리고 있다. /나주=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초중고 절반 이상 과밀 학급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절반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가 기준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26일 교육위원회 임시회 질의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278개교 중 국회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과밀 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이 넘는 학교는 52.2%인 145개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36개교 중 과밀학급 학교는 25.7%인 35곳. 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학교는 ▲풍영초(45명) ▲신암초(44명) ▲매곡초(43명) ▲효덕초(42명) ▲만호초(42명) ▲대반초(41명) ▲진원초(40명) 등 7개교다.

중학교는 전체 81개교 가운데 91.4%인 74개교에 달하고 ▲일곡중(42명) ▲운암중(41명) 등 29곳이 학급당 40명을 초과했다.

고등학교는 61개교 중 59.0%인 36개교로 나타났으나, 40명을 초과한 학교는 없다. 윤 위원은 “신흥 택지지구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풍나물 수업이 여전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개학했으니 TV 끄고 책 봐야지”

학생들 시청률 떨어져

초중고생과 비교했을 때 개학 이후 TV를 덜 보는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2005년 방학 중 17.9%였던 시청률이 개학 후 13.2%로 떨어져 4.7%포인트 감소했지만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감소 폭이 3%포인트와 2.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중학생은 2005년 3월 개학을 전후해 시청률이 15.3%에서 10.9%로 떨어져 4.4%포인트의 변

화를 보였던 것이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3.6%포인트와 3.4%포인트의 감소로 이어졌다. 고등학생의 감소 폭도 2005년 4.8%포인트에서 올해 3.6%포인트까지 줄었다.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엔 2005년 개학을 전후해 시청률이 11.7%에서 11%로 변화, 불과 0.7%포인트 줄었던 것이 다음해에는 감소 폭이 0.8%포인트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는 개학 후 시청률이 11.1%에서 9.5%로 변해 1.6%포인트로 감소 폭이 크게 늘었다.

/연필뉴스

공무원들 아이디어 모아 특허했다

남구 ‘보온 벤치’ 등 3건

남구는 26일 “지난해부터 공무원 1인당 1개 이상의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을 갖자는 운동을 전개해 모집한 지식재산 아이디어 156건 가운데 보온벤치 등 3건을 특허 등록하고, 향후 사업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일봉 구청장이 제안한 ‘음악이 나오는 보온 벤치’는 공인 벤치 등에 착석감지 센서를 부착해 사람이 앉으면 음악이 나오고 바다가 등반이에서 열이 난다. 회계과 나용선씨의 ‘교육용 소화기’는 기존 분말소화용재 대신 물을 넣어 재사용이 가능해 학교

의 교육자재와 직장의 민방위 훈련용으로 고안했다. 기획감사실 박광만씨가 고안한 ‘횡단보도 발광장치’는 횡단보도에 야광이나 발광물질을 코팅해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남구는 이번엔 등록된 특허 가운데 ‘벤치’와 ‘교육용 소화기’는 사업화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 발광장치’는 기존에 설치된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와 함께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앞으로 ‘1주민 1개산권 갖기 운동’ 등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조례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지법 내달 6일까지 재판 모니터링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판재)은 26일 “외부 전문가와 법관, 시민들이 참석하는 재판 모니터링을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모니터링은 광주지법 34개 전 재판부를 대상으로 하며,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시민 등이 참가하게 된다. 참관인들은 재판을 방청한 뒤 해당 재판의 방청 의견서와 설문지를 작성해 광주지

법 법정언행연구회에 제출하게 된다. 법관들도 재판 진행 모습을 캠코더를 이용해 1~2시간 정도 촬영한 뒤 이를 그룹별로 함께 시청하고 평가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광주지법은 이 같은 의견서와 설문지를 바탕으로 법정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해 실제 재판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하철 3년 연속 고객만족도 전국 1위

광주 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가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2007년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중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26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부산교통공사·대구지하철·인천지하철 등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철 서비스 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관평균 66점보다 월등히 높은 78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2005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각각 지하철 부문 1위로 선정된데 이어 2006년, 2007년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1위에 오르는 등 3년 연속 고객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무료자전거 대여 ▲메트로 문화센터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 ‘진절하고 편리한 문화지하철’ 운영에 주력해 왔다. 오행원 사장은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국가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지하철 부문 조사는 1주일에 3회 이상 지하철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객(노선 당 6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990점 만점반 • 800점 목표반
660점 목표반 • 동등중학반

동아외국어학원이 30년 만에 최초로 만점을 석권하였습니다!

예술의 거리 → 중앙초등학교 후문 시거리 입구 ☎(062)222-6253

동아외국어학원

제주도 여행 2월 78,000원

프라이빗 호텔 숙박 3일

제주도 여행 2월 78,000원

1박 2일 78,000원
2박 3일 119,000원
3박 4일 169,000원

문의: ☎064-744-1109 www.millennium.co.kr